

# 이라크 진출, 이제는 준비할 때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CONTENTS

## 목 차

### 요 약 / 1

---

#### I. 변화하는 이라크 시장 / 3

---

- 3 | 1. 이라크 시장의 중요성
- 6 | 2. 이라크의 사업환경 SWOT분석
- 7 | 3. 이라크 시장의 변화

#### II. 이라크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투자 진출 환경변화 / 9

---

- 9 | 1. 이라크 진출환경 개요
- 12 | 2. 이라크 정부의 석유 개발 움직임
- 18 | 3. 주요국의 진출현황
- 20 | 4. 쿠르드지역 진출환경
- 26 | 5. 남부지역 진출환경

#### III. 대 이라크 우회진출 / 30

---

- 30 | 1. 이라크의 최근 교역 추이
- 32 | 2. 지형적 특징에 기인한 우회 진출
- 33 | 3. 주요 우회진출국 추이
- 37 | 4. 우회국별 수출동향 및 특징
- 45 | 5. 우회진출 대표사례

#### IV. 이라크 진출 전략 및 유의사항 / 47

---

- 47 | 1. 이라크 진출 전략
- 49 | 2. 이라크 진출시 유의사항
- 51 | 3. 우회국을 통한 진출전략 및 유의사항

## 요 약

이라크가 과거 4~5년간의 극한 상황을 딛고 2007년 이후 경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가 6.6~6.7% 대의 안정세에 들어섰고, 석유 및 천연가스전 개발과 같은 에너지 분야의 외국기업 참여도 허용되었다. 정부의 정치화합 노력으로 점진적인 치안 확보와 최근의 고유가 및 원유 증산으로 국가재정도 탄탄해지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수니파를 포용하는 정치화합 노력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에 최대 걸림돌인 치안 불안도 바스라와 바그다드의 사드르 시티, 모술 등 주요 도시에서 이라크 군 주도의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라크 재건의 핵심인 재원확보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 말까지 석유분야 수입액이 당초 예상액인 1560억 달러보다 790억 달러 초과 달성할 전망이며 이 중 290억 달러가 재건자금으로 사용이 확정되어 재건사업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중앙 정부의 유전 개발 움직임도 활발한데 금년 말까지 원유를 50만 배럴, 2013년까지 450만 배럴로 증산할 계획을 세우고 5대 석유메이저와 단기기술폰지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6개 유전 및 2개 가스전 장기개발계약에 대해서는 36년 만에 첫 공개 입찰을 실시하여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어느 정도 치안이 확보된 북부 쿠르드는 자체 투자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와는 상이한 석유법 해석하에 유전개발은 물론, 기반시설, 리조트 건설, 농업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인근의 터키, 이란, UAE 기업들의 비중이 높지만,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기업들도 점차 진출이 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치안이 불안한 남부지역은 일부 유전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가 저조하다. 그러나 이라크 전체 유전의 80% 이상이 매장되어 있어 신 석유법의 국회통과 시 외국인 투자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은 쿠르드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이 활발한데, 석유공사 콘소시엄이 유전개발권을 확보하였고 그 밖의 기업들도 건설, 발전 분야로 진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제 쿠르드 진출 경험을 기반으로 중부, 남부 지역으로의 진출을 준비할 때이다.

이라크 진출 전략으로 ▶ 우리의 강점인 원유 정제시설 및 파이프 복구, 석유화학플랜트, 발전, 통신 등 외국인 투자를 기다리는 분야를 공략하며 ▶ 아직 치안이 불안한 지역은 제 3국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이라크 내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이라크인들이 한국에 우호적임을 감안하여, 우리의 압축성장에 대한 노하우 전수, 기술인력 양성지원 등 이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반미감정으로 이라크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미국 기업들과 공동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라크 우회진출은 이라크 내 항구가 거의 없고, 전쟁후 치안 불안으로 바이어들이 인근국으로 거처를 옮겨 활동 중이므로 요르단, 쿠웨이트, 터키, 이란, UAE 등을 통한 우회 진출이 활발하다. 2006년 요르단, 터키, 시리아 등의 우회진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50%를 넘었다. 과거에는 요르단 및 쿠웨이트를 통한 우회 진출이 활발했던 반면, 최근에는 치안이 안정된 터키와 관계가 호전된 이란, 그리고 중동의 중계무역 중심지인 UAE를 통한 진출도 활발하다.

대 이라크 우회 진출 시에는 ▶ 이라크 사정에 밝은 현지 파트너 및 유능한 이라크 바이어 발굴이 관건이며, ▶ 중계상권 및 네트워크 인프라, 안전, 비용, 시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우회국을 선택하는 게 좋다. ▶ 또한 요르단, UAE에서 개최되는 중동의 전문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를 발굴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해나 가야 하며, ▶ 장기적인 계획하에 접근할 경우 다양한 국가로의 접근이 가능한 UAE를 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라크 내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들어섰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따른 이라크 치안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고, 현지 치안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자자의 몫이니 관련 비용을 감안한 진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 I. 변화하는 이라크 시장

## 1. 이라크 시장의 중요성

### □ 에너지 자원의 보고

- BP가 발표한 세계의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전 세계 석유매장량은 2조 배럴 이상이며 확인매장량은 1조 2,379억 배럴임.
- 중동지역 확인매장량은 7,553억 배럴로 전 세계의 61%를 차지하나, 1일 생산량은 2천 5백만 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30.8% 수준에 불과함.
- 이라크는 확인 매장량 기준 1,150억 배럴의 원유를 보유한 세계 제 3위 산유국이며 전 세계 매장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산유국별 석유 매장량 및 생산량〉

(단위 : 억 배럴, %)

순위	국가	확인매장량	전세계 매장량 비중(a)	전세계 생산량 비중(b)	c(b/a)
1	사우디아라비아	2,642	21.3	12.6	59.2
2	이란	1,384	11.2	5.4	48.2
<b>3</b>	<b>이라크</b>	<b>1,150</b>	<b>9.3</b>	<b>2.7</b>	<b>29.0</b>
4	쿠웨이트	1,015	8.2	3.3	40.2
5	UAE	978	7.9	3.5	44.3
6	베네수엘라	870	7.0	3.4	48.6
7	리비아	415	3.3	2.2	66.7
8	나이지리아	362	2.9	2.9	100

자료원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8"

- 이라크는 1980년 이후 지속된 전쟁<sup>1)</sup>과 오랜 경제제재로 석유자원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고, 석유메이저들의 진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타 산유국에 비해 개발 여지가 많은 지역임.

1) 1980~1988년 이란-이라크전, 1991년 걸프전(쿠웨이트 전쟁)

- 전세계 석유매장량 기준 9.7%가 매장되어 있지만 생산량은 2.7% 수준으로 매장량 대비 생산량이 29%에 불과하여 주요 산유국 중 그 비율이 가장 낮으므로 차후 생산 가능한 원유가 가장 많은 지역임.
- 2004.8월 전 석유장관 Thamir Ghadban은 미확인 매장량을 약 2,140억 배럴로 추정한 바 있으며 BMI는 2012년 확인 매장량이 1,350억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또한 풍부한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확인 매장량이 전세계 매장량의 약 1.8%인 111.9Tcf (3.17Tcm)를 보유하고 있으며 잠재매장량은 4,250bcm로 추정됨.
- 천연가스의 70%는 유전과 연결되어 있어 원유생산 증대에 따라 가스 생산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BMI는 2012년 천연가스의 확인 매장량이 약 4,400bcm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경제 성장 본격화 전망

- 최근의 고유가로 인해 2008년 중동지역은 세계경제성장률인 3.8%를 상회하는 6.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IMF는 2008년 이라크 경제성장률을 중동의 산유국 보다 다소 높은 6.6%로 전망하고 있음.
- 원유 생산 증가 및 고유가로 인해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있고, 대외부채 상황도 나아져 국가 경제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중동 산유국 및 이라크 실질경제 성장률〉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중동산유국 <sup>2)</sup>	5.0	6.3	6.2	-
이라크	1.9	5.9	6.6	6.7

\*는 추정치

자료원 : IMF, EIU "Country Report"(2008 7월)

2)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이란,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UAE, 이라크임.

## 〈이라크 주요 경제 수치 및 전망〉

구분	2006	2007	2008*	2009*
소비자물가상승률(평균)	53.2	30.7	15.2	12.5
석유생산(천 배럴/일, 평균)	1,902	2,093	2,460	2,706
정부재정수지(GDP대비%)	14.1	12.2	37.1	23.7
수출품(fob기준, 10억 달러)	28.4	38.1	78.5	80.5
수입품(fob기준, 10억 달러)	21.5	25.7	37.3	45.4
경상수지(10억 달러)	5.7	6.0	31.4	23.9
경상수지(GDP 대비%)	13.4	10.0	41.5	27.5
환율(평균) ID:US\$	1,466	1,255	1,202	1,200
대외부채(연말; 10억 달러)	97.9	100.9	68.0	50.3

\* : EIU 전망치

자료원 : EIU "Country Report"(2008.7월)

□ 이슬람 문화의 종주국으로서의 민족적 저력을 지님

-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 7천년의 명예와 신성함을 가지고 있는 이라크는 한때 시리아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중동 전체를 지배했었고, 바빌론 왕국이 건국되었던 이슬람 문화의 종주국임.
- 중세 압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는 아랍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오랜 역사를 통해 이라크인들은 비즈니스 상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음.
- 이라크인은 과거 중동의 산유부국으로 풍족하게 살던 옛 시절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적 잠재력과 문화 수준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 발전 저력이 있는 민족임.

## 2. 이라크 사업 환경

### □ 이라크 사업환경 SWOT 분석

#### 〈이라크 사업환경 SWOT 분석〉

이라크의 사업환경 SWOT 분석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석유매장량 3위이며 가스자원 역시 풍부함.</li> <li>▪ 석유 추출의 기술 전문성 확보 및 서방 기업과의 관계 증진은 원유생산의 증가로 이어질 것임.</li> <li>▪ 개혁 속도는 더디지만 차근차근 민주화를 진행하고 있음.</li> <li>- 미국은 중기에 걸친 정치적 재건을 약속하였고, UN과 아랍국가들의 지지를 얻고 있음.</li> </ul>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의 정치 안정화에 대한 성공이 불투명하며 정치변화 및 단일국가로의 통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음.</li> <li>- 아직까지 분쟁해결 및 법·질서 유지에 중요한 정파간 분열을 보이고 있고, 수니파는 전반적으로 헌법에 반대 입장임.</li> <li>▪ 만성적 투자부족으로 석유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경제 고립으로 비석유부문 쇠퇴</li> <li>▪ 정부 관계자들의 개방경제에 대한 경험 및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함.</li> <li>- 재건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생산능력 부족으로 부패 가능성이 큼.</li> </ul>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대부분의 주요 정당은 정치 안정화에 전념하고 있음.</li> <li>- 신규 헌법은 지방 차원의 민주적 참여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임.</li> <li>- 말리키 수상의 국가 화합 계획에 따라 일부 반정부 강경세력을 사면하였음.</li> <li>▪ 184억 달러의 미국의 재건기금에 더하여 추가적인 재건기금이 증대되고 있음.</li> <li>- 상당 수준의 재건 자금이 중반부에 걸쳐 투자 프로젝트에 지원될 예정임.</li> <li>- 파리클럽으로부터 80%의 부채를 탕감 받아 대외 채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됨.</li> <li>▪ 석유부문과 달리, 탄화수소부문은 10년간 극심한 투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IOCs<sup>3)</sup>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li>- 탄화수소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됨.</li> <li>▪ 중반부에 경제 자유화가 시행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자유 무역이 가능할 전망이다.</li> </ul>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확실한 변화에 대한 불안이 장기 투자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킴.</li> <li>▪ 빈번한 공장 시설 파괴행위 및 밀수행위가 석유 수출에 저해가 되고 있음.</li> <li>- 북부의 키르쿠크와 터키의 세이한(Ceyhan)간 송유관에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li> <li>▪ 소규모 무장 세력 및 반연합 세력이 국가 전역에 존재하며 외국의 민간 사업자를 목표로 테러를 일삼고 있음.</li> <li>- 불안한 치안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보험료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은 재건 기금의 25%가 프로젝트의 치안 확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li> <li>▪ 미국의 재정지원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참여 기업의 국적을 제한하고 있음.</li> </ul>

자료원 : BMI "Iraq Oil & Gas Reprot Q2 2008", KOTRA 종합

3) IOCs: International Oil Companies

### 3. 이라크 시장의 변화

#### □ 정치적 화합 시도

- 정부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파간 화합, 정파간 이해관계 타협, 쿠르드지방 통합 등 국민 화합과 국가 재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노리 알 말리키(Nouri al-Maliki) 총리는 최근 자신과 같은 이슬람 시아파 무장 세력에도 단호히 맞서면서 이라크인들로부터 신뢰 기반을 다지며 이라크의 국정을 장악하고 있음.
  - 건국 이후 처음으로 정권을 획득한 시아파와 종전 지배세력인 수니파와의 대립관계 청산 움직임을 보임.

#### □ 점진적 치안 개선

- 2008년에 이라크 내 다양한 종파 간 저항으로 아직 완전한 정치적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2006~2007년 수준의 무력 대항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최근 바스라와 바그다드의 사드르 시티, 모술 등 주요 도시에서 이라크 군 주도의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미군의 철군 시간표를 놓고 미국과 협의 중에 있음.
  - 최근 저항 세력의 공격이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미국 사망자 수도 지난해 상반기 584명에서 올해 208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이라크 내 치안 상황이 호전되고 있음.
  - 이라크군 훈련을 지휘했던 제임스 두빅(Dubik) 미 육군 중장은 2008.8.19일 의회에서 이라크 지상군이 내년 중반이면 완전히 제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했음.
  -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은 이르면 9월부터 병력 철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음.(현재 이라크에는 미군 14만 9,600명이 주둔하고 있음)

- 최근 치안 유지권이 이라크 정부에 빠르게 이양되고 있으며 현재 18개 주 가운데 이라크 정부가 10개 주의 치안 유지권을 넘겨받았고, 올해 말까지 전국의 치안 유지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 정부 재정상태 건실로 재건자금 확보

- 석유생산량 증가 및 고유가로 정부의 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이 건실해졌으며 국가 안정화 및 재건 자금을 확보함.
  - 미 의회조사기관(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2008.8월 발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말까지의 이라크 석유분야의 예상 수입은 최소 1560억 달러였으나 이미 79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고, 이 중 290억 달러는 이라크 재건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 송유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노력으로 석유 수출이 증대되었으며 터키의 세이한(Ceyhan)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출은 평균 360,000b/d에 달하여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키르쿠크 세이한간 송유관은 이라크 원유 생산량의 40%를 운송하고 있음
- 파리클럽으로부터 80%의 해외 부채를 탕감 받았고, 미국으로부터 184억 달러의 재건 기금을 확보하였음.
- 국제 생필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디나르화 강제로 인한 인플레이션 안정화 추세로 2007년 30.7%에서 2009년 12.5%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 II. 이라크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투자진출 환경변화

### 1. 이라크 진출 환경 개요

□ 중동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투자개방정책 채택

- 2006.8월 쿠르드 자치정부는 신투자법을 마련하여 보다 개방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였고, 중앙정부도 2006.12월 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 탄화수소(Hydrocarbon) 및 보험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 100% 외국인지분소유 허용 ▶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등 대우 부여 ▶ 외국인의 단독투자 ▶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지사 설치 ▶ 과실송금 ▶ 기타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 허용
- 이라크 정부는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허가서 발급 및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지방투자청과 업무 조율을 하고 있음.

#### 〈투자기회 : 이라크 투자 개요〉

투자방법 관련	국영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는 투자 허가서를 발급하고, 지역 투자 위원회와 조정업무를 진행
	위원회는 석유, 가스, 보험, 금융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감독
	위원회에 투자제안서는 사업계획서, 회사정보, 자금조달내역, 투자규모와 기간을 포함
투자유인책	10년간 세금 우대
	수입 장비와 자본에 대한 세금과 관세 면제
	이라크 투자자를 위한 연화차관(달러 등 국제 통화로 빌려주고 현지 통화로 상환받는 유리한 차관)
조건	외국인 투자자들은 토지 소유 불가, 임차해야 함.
	이라크 노동자 고용하거나 자격 조건을 갖춘 이라크 노동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함.
	투자 허가를 받은 외국기업들은 이라크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함.

자료원 : Reuters Factbox

- 투자법의 시행을 담보하는 하위 법령 미제정, 투자지원체제 미흡으로 아직까지 제도적 기반이 미정착된 상황임.

□ 거대한 개발 수요

-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년), 12년간의 UN 제재, 쿠웨이트 전쟁,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이후 저항세력의 테러 등으로 산업시설이 크게 파괴되고 노후화되어 개발 수요가 많아 여기에 엄청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바그다드 안정화 계획(Baghdad's Security Plan)의 대변인인 Tahseen SI-Sheikhli에 따르면 바그다드 재건 사업에 30억 달러가 필요하고, 이라크 전체 재건에 총 400억 달러가 필요함.(자료원 : BMI 2008년 7월)
  - 반면, 이라크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라크 복구 사업에 1,0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중 1/3 이상이 석유, 가스 및 전기 분야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현재 80개 유전 중 27개 광구에서만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 이라크 국민에게 필요한 원유를 공급하기에도 정유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원유 증산 및 정유시설 확대가 절실함.
  - 미국과 이라크는 도우라(Doura) 정유소에 2개의 70,000b/d 정유시설을 설치하여 원유 공급을 증가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1일 원유 생산량이 1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쟁으로 발전설비가 파괴되어 복구가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이라크의 전력은 2006년 기준 6,000MW 사용 가능한 반면, 여름철 최고 8,000MW 전력이 소요되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음.
  - World Bank는 전력난(전력 저장 및 증가) 해소를 위해 연간 최소 \$120억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비석유 분야의 낙후성이 심각한 상황으로 원유 생산성 향상에 있어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며, 오랜 경제 봉쇄 및 전쟁으로 주요 교통수단이 파괴되어 이에 대한 복구도 시급한 상황임.

〈이라크 개발 프로젝트〉

분야	주요 개발 정책 및 프로젝트
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정부의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장기간의 이라크 재건 기금으로 1000억 달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 이중 1/3은 원유 가스, 전기 분야에 소요</li> <li>- World Bank는 현 원유생산량 유지를 위해 연간 최소 10억 달러의 자금이 석유 분야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추정함.</li> <li>▪ 바그다드 재건에 향후 3년간 약 30억 달러 투자 예정임.</li> <li>- 주요 투자분야는 주택, 병원, 학교 등이며,</li> <li>- 주요 투자지역은 Sadr시티, Shula와 Shilite 지역임.</li> </ul>
송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6월부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원유 PEZs<sup>4)</sup> 설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총 1억 1천만 달러가 투자될 계획임.</li> <li>- 설치구역 : Baiji → 키르쿠크, 바그다드 → Kerbala · Baiji와 바그다드</li> </ul>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이후<sup>5)</sup> IRRF 자금 중 424억 달러가 전력분야에 할당됨.</li> <li>*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200~250억 달러의 추가자금이 필요(세계은행)</li> <li>▪ 이라크 전력부가 200 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함.</li> <li>- 국가 전체의 전력 재건을 위해 3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소요가 전망됨.</li> </ul>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라크 산업 광물부는 외국기업에게 수익성 있는 400개 공기업에 대해 JV와 PSAs<sup>6)</sup>를 제안함.</li> <li>- 재건에 필수적인 시멘트 분야 우선 유치, 기타 석유화학 및 섬유공장도 주요 유치 순위임.</li> </ul>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정보는 미국 국제무역청 웹사이트(<a href="http://www.export.gov/iraq">www.export.gov/iraq</a>)에서 입수가능</li> </ul>

4) PEZs : Pipeline Exclusion Zones

5) IRRF : US Iraq Relief and Reconstruction Fund

6) PSAs(Production Sharing Agreements): 생산물 분배계약, 광구개발에 대한 대가로 산유량의 일정 비율을 외국계 투자기업이 소유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쿠르드 지역의 광구개발 계약의 대다수를 이룸.

## 2. 이라크 정부의 석유 개발 움직임

### □ 이라크 석유법 국회통과 지연

- 현재 중앙 정부의 석유법(Hydrocarbon Law)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음.
  - '05년 10월 이라크 헌법 제정 이후 석유수익 분배 및 석유산업 투자 보호를 위한 석유법 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자치정부의 권한과 사담 후세인 정권 하의 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지연되고 있음.
  - 석유자원이 풍부한 쿠르드족의 북부와 시아파의 남부 지역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석유 자원이 많지 않은 중부에 기반을 둔 수니파는 중앙정부의 권한 확대를 주장하고 있음.
- Meed지 2008.7.4일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석유 메이저들은 이라크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PSAs 기반의 석유법 통과를 위해 압력을 가해왔으나, 주요 유전 지대인 북부 쿠르드족과 남부 시아파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주장으로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음.
  - 또한 특히 석유 메이저들과의 PSA 체결은 이라크 전쟁 발발 원인을 미국의 이라크 석유 장악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라크 국민 정서에 반하는 석유법 통과에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임.
  - 석유법 국회 통과 지연으로 외국계 기업들의 시장 참여 불투명, 국제 파이낸싱의 어려움, 정치 불안 지속,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반면 쿠르드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와는 상이한 석유법 해석하에 차별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중앙정부와 쿠르드 지역정부의 석유법 비교〉

구분	이라크중앙정부	쿠르드지역정부
구성,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급 회담 ◦ 장관급 회담</li> <li>◦ 연방 석유·가스 위원회</li> <li>◦ 석유부</li> <li>◦ 지방정부</li> <li>◦ 이라크 국영 석유 회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급 회담</li> <li>◦ 천연자원부</li> <li>◦ 쿠르드 국영 석유회사</li> <li>◦ 여타 쿠르드 석유회사 (파이프라인 등)</li> </ul>
계약 체결 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사·생산: 연방 석유·가스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INOC<sup>7)</sup>가 담당</li> <li>◦ 기타 계약: 석유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사·생산: 쿠르드정부, 자원부 또는 KNOC<sup>8)</sup>, 연방석유 위원회의 승인 필요</li> <li>◦ 기타계약: 정부부처 및 KNOC</li> </ul>
탐사 및 생산 잠재 누적 매장량	1120억 배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20~35억배럴</li> <li>◦ 미래: 250억 배럴까지</li> </ul>
탐사·생산범위 (석유법에 의함)	이라크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빌, 술레마니아, 도후</li> <li>◦ 키르쿠크로 확장 시도</li> </ul>
탐사·생산 협정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정이나 PSA쪽으로 기움.</li> <li>◦ INOC 경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SA, 파이프라인과 여타 시설 포함</li> </ul>
유전관리-대립요소	◦ INOC, 중앙정부 석유부의 타회사	◦ KNOC

□ 유전 가스 참여 가능 외국기업 1차 선정

- 이라크 정부는 재건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원유 생산량 증대 및 석유산업 활성화를 통한 풍부한 자금 확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표류 중인 석유법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석유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이라크 정부는 2008.4월 이라크 유전 및 가스 개발에 참여할 외국기업의 자격을 심사, 입찰을 통과한 35개사에게 개발 계획이 세워진 가스전과 유전에서 사업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함.

7) INOC: Iraq National Oil Company(이라크 국영석유회사)로 유전의 개발 생산 운영을 수행함

8) KNOC: Kurdistan National Oil Company(쿠르드 국영석유회사)

- 한국은 한국가스공사 컨소시엄 1개사가 선정되었고, 쿠르드 지역 광구 개발을 계약한 석유공사는 중앙정부 선정 기업에서 제외되었음.
- 가스공사 외 LG상사, 한화, 대우 인터내셔널 등으로 구성됨.

### 〈국가별 선정 기업〉

국가	대표기업	국가	대표기업
미국(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xon Mobil</li> <li>▪ Hess Corp.</li> <li>▪ Chevron Iraq Ltd.</li> <li>▪ Conoco Philips</li> <li>▪ Occidental Petroleum</li> <li>▪ Anadarko Iraq Co.</li> <li>▪ Marthon Int'l Petroleum Limited</li> </ul>	영국(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P</li> <li>▪ BG Int'l</li> <li>▪ Premier</li> </ul>
		중국(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NOOC China Ltd.</li> <li>▪ CNPC</li> <li>▪ Sinochem</li> <li>▪ Sinopic Group</li> </ul>
일본(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pex Holding</li> <li>▪ Mitsubishi Corp.</li> <li>▪ Nippon Oil</li> <li>▪ Japex</li> </ul>	호주(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HP Billiton Petroleum Pty Ltd.</li> <li>▪ Woodside</li> </ul>
이태리(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ison Int'l SPA</li> <li>▪ ENI</li> </ul>	러시아(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SC Gazprom Neft</li> <li>▪ Lukoil</li> </ul>
프랑스(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tal</li> </ul>	한국(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gas</li> </ul>
네덜란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hell Iraq</li> </ul>	스페인(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psol</li> </ul>
독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intershall Basf Group</li> </ul>	캐나다(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xon Inc.</li> </ul>
노르웨이(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toil Hydro</li> </ul>	덴마크(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ersk</li> </ul>
말레이시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tronas</li> </ul>	인도네시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tamina</li> </ul>
인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NGC</li> </ul>	-	-

#### □ 이라크 유전 개발, 36면 만에 개방

- CNN 2008.6.30일자에 따르면 석유부는 지난 6월 이라크의 1일 원유 생산량을 현재 2.5백만 배럴에서 금년 말까지 0.5백만 배럴, 2013년까지 2.5백만 배럴을 추가 증산할 계획을 세우고 6개의 유전과 2개의 가스전의 장기 개발계약에 대해 국제입찰을 열었음.

- 이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계 기업이 이라크 내 원유개발에 참가하는 것으로 PQ(Pre-Qualification: 사전심사)를 통과한 35개 외국계 기업 및 6개의 이라크 석유관련 기업이 금번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개발 대상 유전은 al-Rumeila, al-Zubair, al-Qurna West, Bazirqan, Abu Gharab 와 Fakah 6개이며 개발 대가는 일정 금액으로 주어질 예정임.
- 유전 장기개발 계약과는 별도로 이라크 정부는 신 석유법 반대 세력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원유 1일 생산량을 단기간에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석유 메이저들과의 기술지원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Meed 2008.7.4일자에 5대 석유 메이저와 입찰 없이 유전개발에 관한 단기 기술지원계약(TSAs :Technical Support Agreements)을 추진 중임.
- Dutch Shell은 키르쿠크, BP는 루말리아, Exxon Mobil 알주바이르, Total과 Chevron은 웨스트 쿠르나 등의 유전을 두고 협상 중이며 석유 메이저들은 석유개발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현지 기술자 교육을 맡고 그 대가로 자문수수료(US\$5억)를 받게 될 예정임.
  - 메이저들은 자문수수료보다 석유분배권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라크 내 거센 반미감정을 감안하면 시기상조임을 인식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현재의 TSAs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이라크 대표 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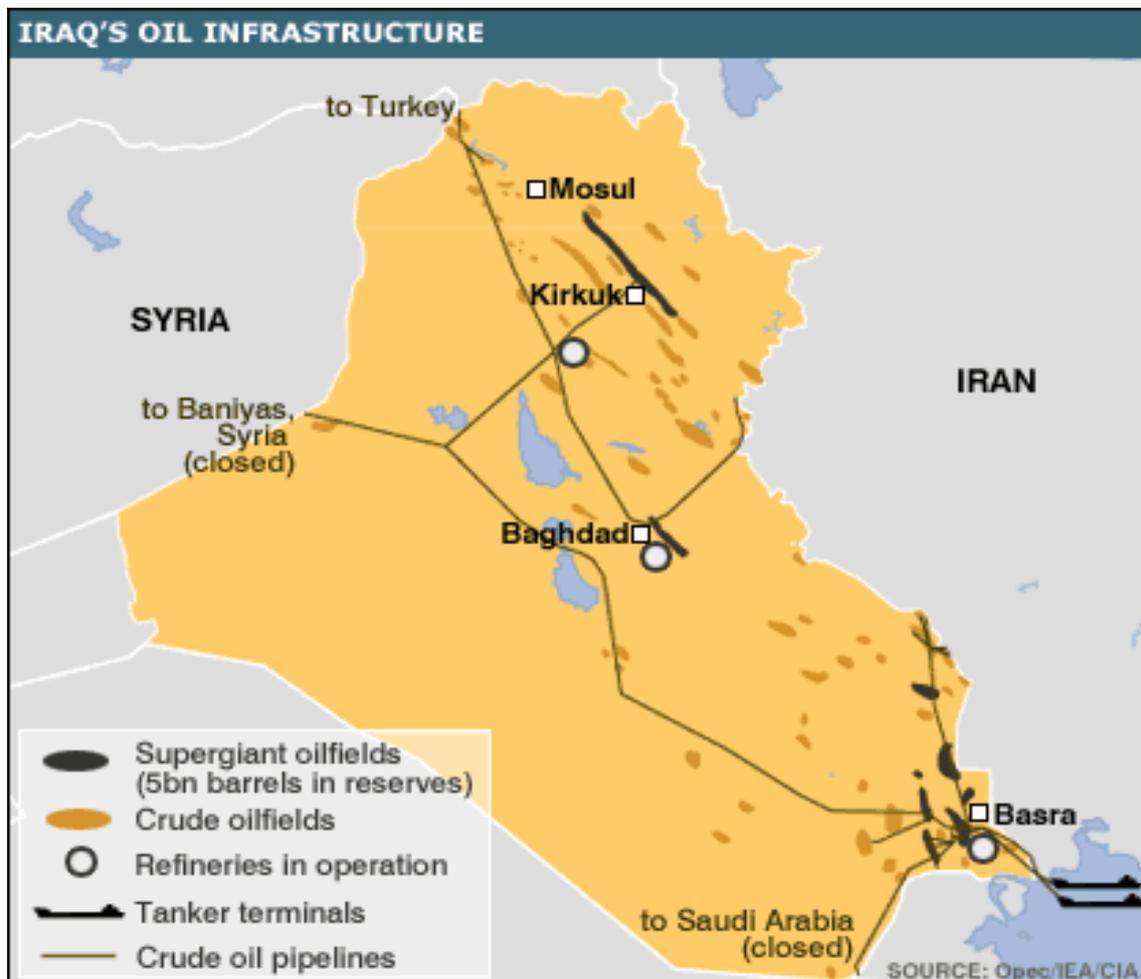
유전명	매장량(억배럴)	유전명	매장량(억배럴)
<b>al-Rumeila</b>	<b>137</b>	East Gahdad	16
Majnoon	82	Luhais	15
<b>al-West Qurna</b>	<b>80</b>	<b>Bai Hassan</b>	<b>13</b>
<b>Kirkuk</b>	<b>51</b>	Tuba	10
Nahr Umr	67	Rafidain	7
<b>al- Zubair</b>	<b>36</b>	Gharaf	5
Halfaya	34	Al-Ahdad	5
Nassiriyah	20	Amara	5
Ratawi	17	Khabbaz	3
Buzurgan	17	Saddam	3

자료원 : 한국석유공사

### 〈이라크 유전개발 일정〉

일정	진행사항
2008년 6.30일	유전개발 사업 착수
2008년 7월	엑손모빌 등 서방 석유 메이저들과 기술서비스 협정
2008년 9월	희망업체로부터 계약조건 접수
하반기~2009년 상반기	41개 우선 협정대상 입찰 진행
2009년 6월	첫 계약
2009년	미개발 탐사유전 입찰

### 〈이라크의 석유 인프라〉



□ EU와 천연가스 공급계약

- 2008.4월 이라크는 EU에 매년 최소한 50억m<sup>2</sup>를 공급하기로 하여 향후 EU와의 에너지 관련 협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 EU는 전체 천연 가스 소비량의 25%를 러시아로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라크 등 대체공급원을 찾고 있음.
- EU는 2006.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을 일시 중단, 유럽에 가스난을 촉발한 이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고 있음.

### 3. 주요국의 진출현황

- 2004년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에 시작되면서 '05년 전년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외국인 투자유치가 2006년 9배 이상 증가함.

#### 〈이라크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동향〉

구분	2003	2004	2005	2006
FDI 유치(US억달러)	0	0.9	0.3	0.27
- GDP내 FDI 비중(%)	0	0.3	0.8	0.5
- 1인당 FDI(US달러)	0	3.5	11.3	10.0

자료원 : BMI(Q2, 2008)

- 주요 투자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등이며 주요 투자 분야는 탄화수소, 소매업, 금융업, 건설업 등임.
-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들은 ODA 사업과 연계한 프로젝트에 자국기업의 에너지 산업, 통신업, 제약 산업, 기계 제조업 등에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라크의 치안 불안, 투자여건 미성숙 등으로 본격적인 투자 진출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임.
- 반면, 통신 분야는 이라크 Telecommunication and Postal Commission이 미국의 이라크 재건 자금을 바탕으로 백텔(Bachtel)과 루슨트 테크놀로지(Lucent Technologies)가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있음.
- 또한 이라크 투자위원회(Iraqi Commission for Investment)는 2007.12월 바그다드 그린존에 85만 달러 규모의 7.5성급 초호화 호텔(25층)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최초의 민간 투자로 이라크 정부는 토지의 무상 제공을 약속하였음.

〈주요 경쟁국의 대 이라크 진출 현황〉

국가	진출 형태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4억 달러의 이라크 재건기금(IRRF:Iraq Relief and Reconstruction Fund) 지원을 통한 개발사업에 벡텔사 등 미국 기업들이 참가하여 전력, 수처리, 석유 및 가스, 보건 SOC 건설, 통신, 운송, 보안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진출</li> <li>▪ 메이저 석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라크 남부유전 확충 프로젝트 참가, 중규모 석유기업은 북부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에 참가</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억 달러 원조와 연계하여 건설, 물류, 전력, 석유, 보건 분야에 진출</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라크 수출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li> <li>▪ 중국 정부의 수백만 달러의 원조 공여 및 부채 탕감 등 이라크 진출 적극 추진</li> <li>▪ 통상사절단을 파견, 사담 후세인 정권시 계약을 근거로 남부 유전개발 사업참여 -Al Ahdab유전(12억 달러, 중국국영석유회사)</li> <li>▪ 통신, 도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진출 추진</li> </ul>
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 250MW의 전력을 Kwh당 US\$ 5.2센트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li> <li>-2008.2월 이란정부는 이라크 나자프지역에 320MW 규모의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발표, 이라크 사다르시에도 발전 프로젝트를 구상 중임.</li> <li>▪ 시아파 성지가 집중되어 있는 이라크 나자프 주 및 카르발라 주에 이란 순례객을 위한 관광시설 개선을 위해 각각 매년 2,0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음.</li> <li>▪ 2006년 이란-이라크는 이라크 바스라항 인근 알샤람에 지역에 1,500평방미터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를 설치기로 합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미수립 상태</li> </ul>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발한 국경 무역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li> <li>▪ 쿠르드지역의 각종 건설사업에 활발히 참여하여 건설시장의 70% 상당을 차지</li> </ul>

## 4. 쿠르드지역 진출환경

### 가. 쿠르드 일반현황

- 쿠르드지역은 이라크 인구의 약 17%(약 500만명)를 차지하며, 연방법상 인구 비율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의 17%가 쿠르드 자치 정부에 배정됨.
- 현재 이라크 전체 원유매장량의 3%정도인 35억 배럴 보유, 현재 약 3만 b/d 생산 중인 Khurmala Dome 이외에는 대부분 탐사단계에 있는 광구들로 쿠르드 측의 향후 최대 생산 가능량은 미국 전체 매장량 보다 약 50억 배럴 많은 250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음.
  - 쿠르드 지역의 투자 매력은 풍부한 원유 매장량과 원유가 얇은 곳에 묻혀 있어 저비용으로 시추가 가능하다는 것임.
- 또한 이라크의 주요 유전인 키르쿠크의 쿠르드 지역 편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주민투표가 중앙정부의 비협조로 연기되고 있음.
  - 키르쿠크 지역에는 이라크의 전체 미확인 원유의 1/3이 가량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라크 쿠르드 자 치지역 내 주요 유전〉



자료원 : 중앙일보

- 최근 급속도로 석유가 채굴되자 수도 아르빌에 신 공항 건설, 세계적인 고급 호텔 체인인 캠핀스키 호텔 건설, 아르빌 외곽의 45억 달러 규모의 쇼핑 센터 및 골프장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음.
- 1991년 이후 사담정권에 의해 철저히 소외된 제조업은 극도로 취약한 상황으로 시멘트 공장 한 개를 제외하고는 제조 산업이 거의 전무함.
  - 농산물 재배가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라크 전체 밀의 50%, 보리의 40%, 담배의 98%, 면화의 30%, 과일의 50%가 쿠르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

□ 쿠르드 지역 주요 프로젝트

〈쿠르드 지역 주요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레마니아 곡물 사일로 건설 프로젝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 재활시설 프로젝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 : 쿠르드 지방정부 상업부</li> <li>· 내 용 : 술레마니아 지역에 곡물 저장 사일로 건설</li> <li>· 규 모 : 3천만 달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 : 쿠르드 지방정부 보건부</li> <li>· 내 용 : 쿠르드지역에 긴급 재활시설 설립</li> <li>· 규 모 : 6백만 달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빌 Bakhma 댐 대용량 수처리 설비 프로젝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외국인 투자 진출 유망분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 : 수자원부</li> <li>· 내 용 : 1일 처리능력-250m<sup>3</sup>인 수처리 설비 공급/설치/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 천연 자원 개발, 은행, 보험 등</li> <li>· 금융업, 관광업, 주택 건설 등</li> </ul>

※ KOICA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쿠르드 지역만 약 1억 2천만 달러 지원  
 - 쿠르드 지역 이외 이라크 지원금 : 1억 4천만 달러 지원(2003~현재)  
 - 지원분야 : 병원, 학교, 운전면허 시험장 등 건설프로젝트가 주를 이룸.

## 나. 쿠르드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 2006년 6월 투자법 제정하고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를 조직하여 중앙정부와는 독자적인 전략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법'(2006년 9월 발효) 주요 내용〉

주요 내용	2006년 투자법의 세금 및 관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국인과 자본 동등 대우</li> <li>▪ 외국인 100% 지분 투자 인정</li> <li>▪ 과실송금 100% 보장</li> <li>▪ 투자 목적의 토지 구입 시 내외국인 동등 대우</li> <li>▪ 기준에 적합한 투자계획에 대해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부지 제공</li> <li>▪ 10년간 관세 면제, 생산 설비와 원료 관세 면제 등 유인책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익금 및 세입(revenue)에 대해 10년간 세금 면제</li> <li>▪ 쿠르드지역에서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면제</li> <li>▪ 이익금 및 세입(revenue)을 재투자 시 세금 전액 면제</li> <li>▪ 지속적인 투자 확장에 대해서 세금 면제</li> <li>▪ 합병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의 세금 면제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li> <li>▪ 기업은 필요시 기계 부품 및 운송 수단 등 수입 가능</li> <li>▪ 외국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 없음</li> <li>▪ 무역 거래시 수출 및 수입 라이선스 불요</li> </ul>

- 쿠르드 정부는 지역 기반 시설 및 농업, 석유·가스, 산업 단지 발전 계획을 발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관광지 개발 사업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쿠르드의 유전개발 계약은 개발비용을 외국투자기업이 부담하고 대신 생산 원유에 대한 순이익의 약 18%에 대한 소유권한을 갖는 조건의 PSA이며 나머지 원유에 대한 권한은 쿠르드 정부가 소유함.
  - 유전개발에 대한 쿠르드 정부와 외국기업과의 계약과 관련, 중앙정부는 무효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쿠르드 자치정부와 중앙 정부간 갈등의 소지가 있음.

## 〈외국인 투자 유치 중점 분야〉

분야	개발 내용
기반시설	▪ 도로, 철도, 터널 네트워크 터키-쿠르드-이란 간 고속도로 등
농업	▪ 농업 및 수로(Water Management) - 밀 경작 유망 (쿠르드족 밀소비) - 농업 기반시설 제도 (냉장저장시설, 창고, 생산물 확대시설) - 물, 관개시설, 유통시스템 - 수력발전기 - 농작물 조직 배양 및 친환경 살충제 개발 등
관광	▪ 이라크 순례지의 경로지로 고고학적 유적지 다수 존재 ▪ 항공 운송 시설 및 호텔, 관광지 개발 등
산업	▪ 원유 정제소, 석유화학 단지 조성 ▪ 시멘트, 철강, 유리, 파이프, 철재 및 케이블 등 제조 산업 ▪ 현대식 식품 제조 산업분야, 비료 제조 시설 분야 ▪ 하이텍산업, 대학과 연계한 조사 연구 개발

## 다. 외국계 기업 투자유치 동향 및 사례

## □ 투자동향

- 2008.6월 현재 쿠르드 지역(아르빌, 도혹, 술래마니아주)에 등록된 외국기업은 약 830여개 기업이며, 이중 80% 이상은 터키 등 인근국가의 기업으로서 주로 건설, 무역 분야 등에 종사하고 있음.
  - 터키 476개, 이란 110개, UAE 26개, 요르단 25개, 레바논 25개, 영국 30개, 미국 19개, 독일 17개, 중국 3개사 등임.
- 2008.5월말 기준 현재 쿠르드 지역(아르빌, 도혹, 술래마니아주)에 투자 승인된 프로젝트 건수는 105건 150억 달러 규모임.
  -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별로 보면 UAE 60억 달러, 레바논 744백만 달러, 미국 342백만 달러, 영국 177백만 달러, 이집트 150백만 달러, Damac(UAE) 리조트건설 60억 달러, ByblodBank SAI(레바논) 은행지점 설치 700백만 달러, S.J.C.O Company(미국) 시멘트 공장 328백만 달러 등임.

- 한국 기업은 UI enc(술레마니아), Alco(아르빌) 등 2개 기업이며, 현재 태화산업, 안흥개발이 법인등록 추진 중임.
- 합작투자는 요르단·이라크 15억 달러, 미국·이라크 315백만 달러, 캐나다·이라크 302백만 달러, 영국·이라크 109백만 달러, 쿠웨이트·이라크 51백만 달러, 스웨덴·이라크 20백만 달러 등임.
  - 미국·이라크 합작: American 대학 설립 235백만 달러, 주택단지 8천만 달러
  - 영국·이라크 합작: 주택단지 1억 달러
  - 캐나다·이라크 합작: 주택단지 3억 달러 등
- 외국인 투자의 석유개발 분야의 진출은 2008년 상반기 25개의 PSA를 체결하여 유전 개발 추진 중임.
  - 광구 개발 및 원유 생산 회사로 2007.9월 캐나다의 Heritage Oil, 프랑스의 Perenco, 노르웨이 DNO, 및 캐나다의 Addax사가 진출하였고 2007.10월 미국의 Hunt Oil이 도혹 지방에 진출하였음.
  - 2007.11월 5개 외국계 석유사와 생산물 분배 계약 체결하였고 체결사는 1) 러시아의 TNK-BP 2) 미국의 Hillwood 3) Aspect Energy 4) 영국의 Sterling Energy 5) 한국의 석유공사(KNOC)
- 기타 오스트리아 OMV, 헝가리 MOL, Gulf Keystone, Texas Keystone, Hunt Oil, 인도 Reliance와도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함.
- 한국은 이라크 기업인 입국 제한 등으로 2007년 중반까지 투자 진출이 미미하였으나 이후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북부 쿠르드 지역으로 진출 중임.
  - 건설 : UIenc의 술레마니아 병원 건축, 쌍용건설 등 SOC 컨소시엄 쿠르드 지역 SOC건설 MOU체결(2008.2월)
  - 석유 :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이 바지안 등 유전개발계약 체결(2007.11월/2008.2월)

□ 국가별 투자 현황

국가	투자현황
U A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의 Damac는 향후 10년간 60억 달러 투자(현재까지 최대규모)</li> <li>- 아르빌 Tarin Hills에 리조트타운, 오피스텔, 주택단지, 아울렛 등 건설 계획임</li> <li>- KRG는 Damac에게 토지 5백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음.</li> </ul>
네 덜 란 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쿠르드 지역에 등록된 네덜란드 기업은 8개, 추가 40여개 대표 기업이 농업, 철도, 화물/여객터미널, 대학 캠퍼스 건립 등의 프로젝트 추진 문제에 대해 협의</li> <li>▪ 쿠르드 정부 프로젝트 중 중앙정부가 승인한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차관방식으로 자본을 투자하되 차후 중장기간 대금회수를 위해서 쿠르드 정부, 이라크 중앙은행, 중앙정부(재정부)의 보증을 조건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li> <li>· Proven : 네덜란드 여왕이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유제품 생산에 직접 투자할 계획이며 쿠르드 정부가 100만 평방미터 농업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 예정</li> <li>· KIM(네덜란드/그리스 합작회사) : 60억 달러 규모의 도후-아르빌-술래마니아간 철도(700km) 건설, 3개의 화물, 여객터미널 건설, 철도차량 생산설비 건설 추진 및 살라하딘대학교 캠퍼스 건설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협의 중임.</li> </ul>
프 랑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008.6월 주 이라크 대사관 아르빌사무소를 개소하여 본격적인 진출 움직임.</li> <li>▪ 상수도 등 수자원 분야, 관개시설, 이동 통신망, 전력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알카텔사는 이동통신망 기술분야(네트워크 안테나 기술)에서 쿠르드측 기업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li> <li>- 또한 파이프라인 건설, 발전기, 상수도 시스템, 농업분야, 건설(터널, 철도, 고속도로)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 조사 및 현지 파트너를 발굴할 계획임.</li> </ul>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위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영국의 “중동협회”가 작년부터 영국기업들과 아르빌을 방문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li> <li>▪ 대표적인 진출기업은 석유회사인 “Sterling”이 술래마니아 지역의 광구개발, 컨설팅사인 “Two Rivers”가 프로젝트 컨설팅을 하고 있음.</li> </ul>
체 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코는 이라크 댐건설 기술분야, 발전기, 전력분야의 협력에 강점 보유</li> <li>▪ 대표적 진출기업은 아르빌 소재 고대건축물인 성채와 이슬람사원침탑 복원공사를 맡았던 게마아트그룹, Skoda 자동차(아르빌, 도후사무소 개소), 댐건설 등 수자원분야 컨설팅회사인 크레이그룹, 시멘트공장 건설(Ineko사) 등임.</li> </ul>

## 5. 남부지역 진출환경

### 가. 남부지역 일반현황

#### □ 남부지역 일반현황

분 류	내 용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아파 9개 지방 정부로 구성</li> <li>- 와시트주(207.6만), 바스라주(200.5만), 바빌주(117.6만), 디카르주(115.2만), 나자프주(74.4만), 메이산주(61.7만), 카디시야주(55.3만), 카르발라주(50.6만), 무타나주(40.2만)</li> <li>▪ 남부지역은 이라크 이슬람 최고위원회(SIIC), 사드르당, 파달라당(바스라주 거점) 등 시아파 정당의 분점</li> </ul>
민 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랍족(시아파 다수, 수니파 소수), 기타 등</li> </ul>
주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 석유화학, 농업, 건설업, 관광업 등</li> </ul>
경제 성장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스라주, 메이산주, 디카르주</li> <li>- 남부 유전지대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li> <li>▪ 나자프주, 카르발라주 : 시아파 성지로 관광업 중점 육성</li> </ul>

- 남부지역의 주요산업은 석유, 석유화학, 농업, 건설업, 관광업 등이며 향후 잠재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임.
- 바스라, 메이산, 디카르주는 남부유전지대의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이며, 특히 바스라주에는 이라크 석유자원의 60% 이상이 매장되어 있음.
- 나자프주, 카르발라주 : 시아파 성지로 관광업 육성 가능성이 높음.

〈이라크 지도, 남부지역 위주〉



나. 남부지역 투자유치 동향

□ 남부지역의 투자유치 전략

- 중앙정부의 투자법과 동일하게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준비 중이나 지원 조직과 법적 기반이 미흡한 수준으로 국회 심의중인 석유법이 통과되면, 유전 개발에 외국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지역 내 국영기업의 민영화나 합작 투자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각종 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주정부 차원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음.
  - 현재는 유전설비 확충, 석유정제설비 확충, 항만과 공항 신개축 등의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투자 지원책 : 중앙정부의 지원책 적용
  - ▶ 10년간 조세 감면 ▶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50% 초과 시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 증대에 따라 15년까지 조세 감면 연장 가능 ▶ 프로젝트 자산의 법에

반한 처분, 타 용도로 전용시에는 세금(관세 포함) 및 벌금 부과 ▶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자산이 승인 후 3년내 수입될 경우 수입관세 면제 ▶ 투자 프로젝트의 확대 위한 수입 자산은 위원회 신고일로부터 3년내 수입시 관세면제 ▶ 투자 자산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부품의 관세 면제

- 주정부 차원의 투자관련 조직 및 법적기반 미구축으로 투자여건이 완비되지 않았으며, 주정부의 행정력 미흡과 치안 불안으로 투자 유치실적이 미미함.

□ 남부지역 주요 개발 프로젝트

〈남부지역 주요 개발프로젝트〉

분류	세부 내용
국영기업 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기업 ▶ 석유화학, 건설, 식품 및 제약업, 섬유, 엔지니어링 분야의 45개 국영기업</li> <li>▪ 발주처 ▶ 이라크 산업부</li> <li>▪ 진행상황 ▶ 2008.4.19-20 기간 중, 두바이에서 투자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Al Qaim Cement사(루마니아 기업)와 Al Kirkuk Cement사에 대한 합작투자 성사</li> </ul>
석유 정제공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기업 ▶ Karbala 정제설비, Nasiriya 정제설비 등</li> <li>▪ 발주처 ▶ 이라크 석유부</li> </ul>
발전소건설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역 ▶ Wasit, Nasiriya, Samara, Yousfiyya, Hila, Karbala 등</li> <li>▪ 발주처 ▶ 이라크 에너지부</li> </ul>
유망 진출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 개발, 석유화학, 국영기업 민영화, 전력 개발, 관광업 등</li> </ul>

### 〈이라크 비즈니스 상관행〉

1. 바이어에게 소속 종파 및 정치에 대해 묻지마라 : 정치적 화제 및 종파에 대한 질문은 민감한 사항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2.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직접 만나라 : 이라크인들은 사람만나는 것을 좋아하므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친분을 쌓는 것이 좋다. 현지의 열악한 통신 사정상 선약 없이 찾아가도 반기는 편이다. 그러나 공무원과의 면담 시에는 사전 약속을 해야한다.
3. 이라크 시간에 맞추고 인내심을 발휘하라 : 이라크 바이어들은 약속시간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이 잦고, 또한 상담 중에 걸려온 개인적인 전화로 상담을 중단하는 일이 흔하며, 상담 시 제기된 문제나 상대방 의도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4. 바이어의 초대에는 호의적으로 응하라 : 이라크인들은 손님 접대를 즐기며 첫 대면인데도 식사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호의를 거절하지 않는 것이 좋고 특히 집으로 초대받았을 때는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차후 답례 형식으로 초대를 하면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5.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라 : 히잡을 쓰고 있는 무슬림 여성에게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 및 식사 시 왼손 사용은 금기시되고 있고 또한 상대방에게 신발 바닥을 보이게 앉는 행위는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III. 대 이라크 우회 진출

#### 1. 이라크의 최근 교역 추이

##### □ 이라크의 최근 교역 동향

- 이라크의 2006년 수출은 284억 달러로 전년대비 43.7% 급증, 수입은 215억 달러로 15% 늘어나, 6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전체 수출의 약 98%를 차지하는 원유 수출 증대에 기인함.
- 2007년에도 유가 인상, 석유 생산 증대에 힘입어 수출은 374억 달러로 36% 이상 증가, 수입은 237억 달러로 10%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49억 달러 가량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

#### 〈이라크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
총수출	17,782	19,773	28,412	37,400
- 원유	(17,460)	(17,610)	(28,070)	(31,180)
총수입	19,954	18,748	21,480	23,735

자료원 : EIU \*는 추정치

- 이라크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스페인, 이태리, 캐나다 순이며 미국이 전체 수출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수입국은 시리아, 터키, 미국, 요르단 등으로 우회 진출국인 시리아, 터키, 요르단 등이 전체 수입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함.

#### 〈이라크 주요 교역 대상국(2006년)〉

주요 수출국가		주요 수입국가	
국가명	점유율(%)	국가명	점유율(%)
미국	46.6	시리아	26.9
스페인	22.9	터키	20.6
이태리	13.3	미국	12.0
캐나다	13.1	요르단	7.3
기타	4.1	기타	33.3

자료원 : EIU

□ 한국과의 최근 교역 동향

- 한국의 대 이라크 수출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7년 수출은 전년 대비 92% 신장, 수입은 240%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함.
- 2005년 이라크 정부의 중고차 수입연식으로 한국의 대 이라크 수출이 전년 대비 약 45.6% 급감하였으나, 2006년 수출이 회복세로 반전되어 약 59.8% 증가하였음.
  - 이라크 정부는 2005.1월 2004년식 이전 중고차량 수입을 금지시켜 연간 약 20만대, 2003년 이후 약 90만 대의 중고차를 수출한 한국의 대 이라크 중고차 수출길이 사실상 막힘. 2004년 이후 중고차량 및 기 수출차량의 부품형태로 일부 수출하고 있으나 물량은 미미한 수준임.
- 한국의 이라크 수출은 이런 직수출 외에 인근국인 UAE, 요르단, 시리아 등 인근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
- 2006년은 우회 수출이 3억 달러 정도로 직수출 규모의 3배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7년에도 동일한 우회 수출 물량이 유지된 것으로 추정됨.

〈한국의 이라크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
수출	125.4 (252.1%)	68.2 (-45.6%)	108.9 (59.8%)	209.7 (92.7%)
수입	408.0 (611.7%)	675.3 (65.6%)	905.7 (34.1%)	3,079.8 (240.1%)

자료원 : 무역통계(KOTIS)

- 2007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연초류(2억1천만 달러, 23%), 승용차(4천8백만 달러, 19%), 화물자동차(4천1백만 달러 18%), 선박용 엔진 및 부품(1천만 달러), 자동차부품(1천만 달러) 및 기타 축전기, 특장차, 건설 중장비, 의료용전자기기 등을 수출하고 있음.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연초류, 승용차, 화물자동차, 발전기, 자동차부품 등이며, 이들 품목의 2007년 수출비중은 각각 23%, 19%, 18%, 6%, 5% 임.

- 이 중 인근국을 통한 우회 수출품목은 요르단의 경우 중고차, 가열난방기, 자동차 부품, 칼라 TV 등이며 UAE의 경우 에어컨, 냉장고, 휴대폰, 담배, 섬유제품 등임.
- 한국산 담배는 35%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며 제 1의 수입국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이는 이라크인의 반미 감정으로 인해 미국산 말보로와 유사한 한국산 PINE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이며 전체 수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양가죽(1백만 달러)을 수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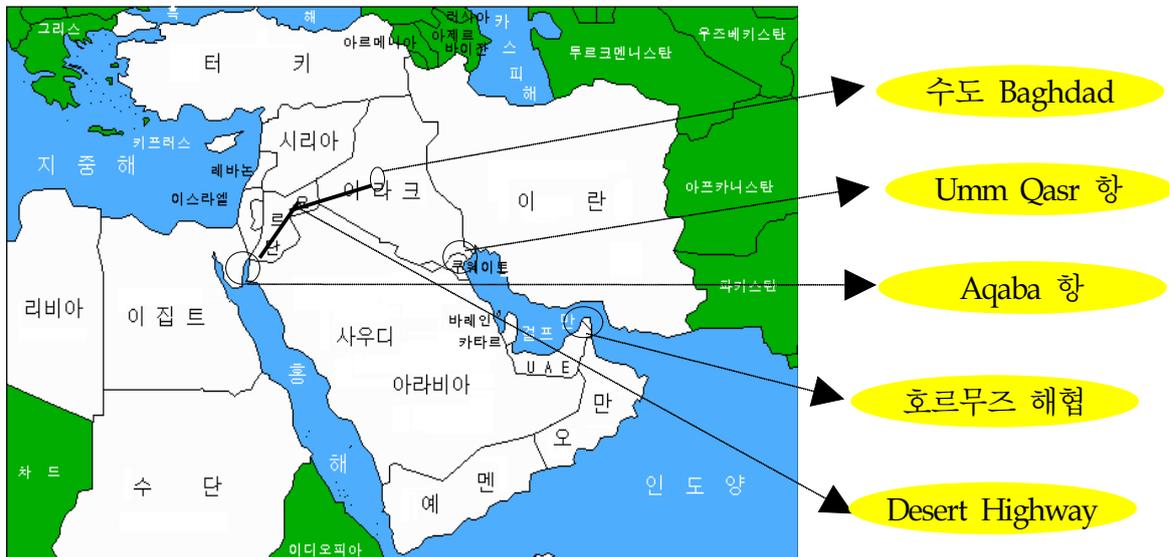
## 2. 지형적 특징에 기인한 우회진출

- 이라크는 남부 바스라 지역의 움카스르(Umm Qasr : 바스라) 항구를 제외하고는 수로 접근이 불가능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쟁 이전부터 인근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활발하였으며, 전쟁 이후 직접 수출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우회수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임.
- 현재 움카스르는 전쟁의 여파로 해저에 모래, 콘크리트 폐기물 등이 산적해 있고 준설이 되지 않아 다양한 대형 선박의 접근이 어려우며 또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전쟁에 사용된 각종 지뢰 및 위험물질이 내려와 항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지형적 특징 뿐 아니라 전쟁 이후 이라크 현지 치안 불안으로 대다수의 바이어가 요르단, 시리아 등 인근국으로 거처를 옮겨 활동하고 있으므로 인근국에서 이들과의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라크는 6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우회진출 기지로 접경국인 서쪽의 이란, 남부의 쿠웨이트, 서쪽의 요르단과 시리아, 북쪽의 터키 및 중동의 중계무역 중심지인 UAE 가 활용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2006년 우회 수출액이 3억 달러에 달해 직수출 규모의 약 3배를 기록, 2007년에도 동일한 우회 수출 물량이 유지된 것으로 추정됨.

### 3. 주요 우회 진출국 추이

- 이라크 우회진출국의 활용 비중은 시대에 따라 변화는 있으나 현재까지 모든 인접국가가 우회진출지로 활용되고 있고, 아울러 중동 아프리카 중계무역의 중심지인 UAE의 활용도도 높은 편임.
- 이라크 인근국은 이라크 진출의 교두보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관련 산업 단지 개발 및 고속 도로 건설 등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대 이라크 진출 주요 우회국가〉



#### □ 쿠웨이트

- 걸프전 이전까지 쿠웨이트 수입물량의 30%가 중계무역일 정도로 중동지역 중계 무역항으로 주목 받았으며 중계 물량의 대부분은 이라크를 대상으로 하였음.
- 걸프전 이후 이라크와의 관계 악화로 쿠웨이트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라크의 항구 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해상 운반하는 물자는 쿠웨이트 항구에 하역한 후 국경을 넘어 이라크로 유입되고 있음.

### 〈쿠웨이트 경유 이라크 수출입 통계, 2004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쿠웨이트 → 이라크 (수출)		이라크 → 쿠웨이트 (수입)
쿠웨이트 경유 재 수출	자체 수출	
159,370	37,034	6,704

자료원 : 쿠웨이트 기획부 (2005년 이후 통계자료를 아직 발표치 않고 있음)

-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로 반입되는 물자는 대부분 경유 수출 물량이며, 쿠웨이트 정부의 2005년 이후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으나, 상기 수치보다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됨.

#### □ 요르단

-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년)과 걸프전(1990~1991년)을 거치면서 대 이라크 우회수출 기지로서 요르단의 입지가 확고해졌음.
  -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 시 이라크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피하기 위해 홍해에 면한 요르단의 아카바항을 자국의 움카스르항을 대신하는 대체 물자 수송로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음.
  - 이라크의 유일한 항구였던 움카스르항이 전쟁으로 전파되고, 이어 2년 후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쿠웨이트항 이용도 불가하게 됨에 따라, 대 이라크 우회 수출 기지로서 아카바항의 효용성은 더욱 증대됨.
- 우회수출기지로서 요르단의 역할은,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패퇴(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하고, UN의 대 이라크 경제 봉쇄 조치가 실시되면서 약 5년간 크게 위축되었으나, 1996년 UN 주관으로 "석유식량 프로그램"<sup>9)</sup>이 실시되면서 요르단은 이라크와 교역 가능한 유일한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함.
- 2003.4월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오랫동안의 경제봉쇄 해제로 인한 물품 수입수요 급증, 이라크 내 규모를 갖춘 항구 부재, 이라크 재건

9) 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요르단은 연간 3억 달러 규모의 의약품과 식량을 이라크에 제공하는 대신 매년 5억 달러 규모의 원유를 국제 시세보다 낮게 (3억달러 규모의 원유는 무상제공) 제공받는다든 내용의 양국간 무역협정을 체결

및 난민 지원용 물자 수송 루트로서 요르단의 아카바항 지정되면서 대 이라크 우회기지로서 요르단의 역할은 꾸준히 증대되었음.

- 최근 들어서 요르단을 통한 우회 수출시 아카바-바그다드 간의 도로 안전 위협 및 이라크 남부지역에서 치안 불안 등으로 인해 요르단의 아카바항과 이라크 남부의 움카스르항 이용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원활한 원유 수송 등을 위해 아카바-바그다드 간 연결 도로의 치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아카바항을 통한 대 이라크 우회수출 물량 증대 가능성은 높음.

#### □ 터키

- 우회진출국으로 요르단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대체지로 터키가 각광받고 있음.
- 요르단-이라크 국경에서의 화물 검문검색이 엄격한데 비해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지역은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터키를 통한 진출을 가속화시킴.
- 삼성전자 이라크 에이전트의 경우 과거에는 요르단 아카바항을 통해 물건을 수입해 왔으나 최근 최종 도착항을 터키의 메르신(mersin)항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40피트 컨테이너 하나당 약 1천 달러의 절약효과가 있다고 함.
- 한국 상품의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출에 비해 터키의 메르신항을 주로 경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서류 작업이 간소화될 뿐 아니라 안전한 운송이 가능함.

#### □ 이란

-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 이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우회진출이 활발했으나 이란-이라크 전쟁이후 2003년까지 양국간 관계가 소원하여 교역이 전무하다가 2003년 전쟁 이후 이라크에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관계가 급진전 되고 있음.

- 양국은 총 1,000km에 달하는 가장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후세인 정권 시절에는 시리아, 요르단, 터키 등 이라크 서북부에 위치한 국가와 주로 교역이 이루어진 반면, 2005년 이후 수니파 저항세력의 거점 지역인 서북부의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부가 신규 무역로로 부상
- 이란의 대 이라크 진출 도시로는 이란 남동쪽 이라크 접경지역인 케르만샤 주 호스라비 지역, 쿠제스탄주, 코르데스탄주가 각광을 받고 있음.
  - 특히 호스라비 지역은 이라크 진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곳의 약 40% 이상의 물류가 이라크로 이동하고 있고, 케르만샤에서는 이란 측 주최 하에 이라크 재건박람회가 2005년부터 매년 11월경에 개최되어 이라크 우회 진출지로 주목받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이란이 미국 및 UN의 경제제재로 이란 수출품에 대한 규제 및 금융규제 등이 따르고 있어 이란을 통한 이라크 우회진출이 여의치만은 않은 실정임.

#### □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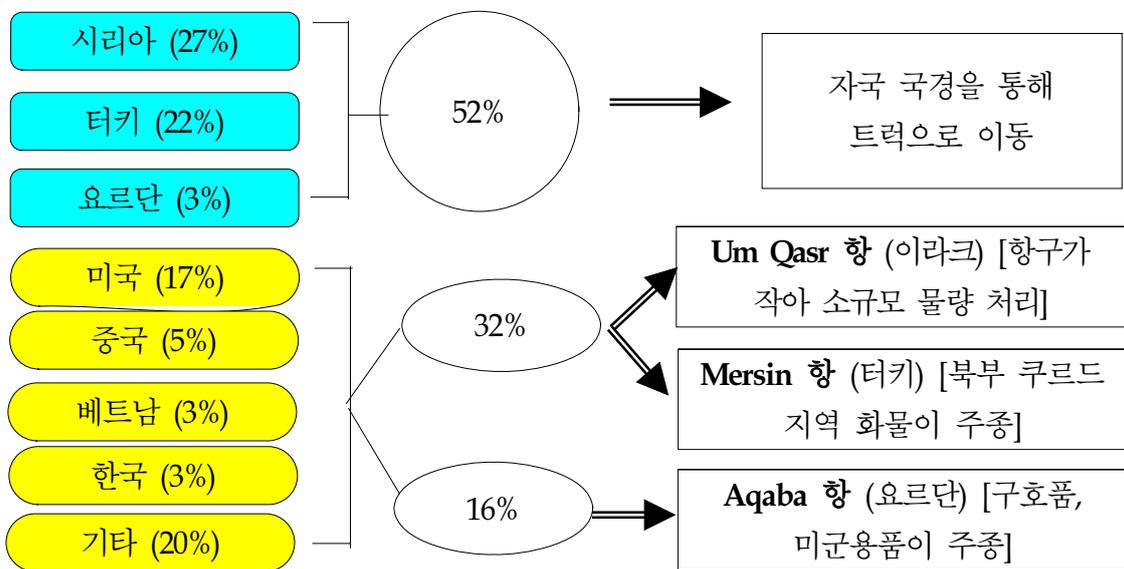
- UAE는 중동·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서 물류·유통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라크의 경우, UAE에 기반을 두고 여타 지역 진출과 병행한 진출 전략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인기가 높음.
  - UAE 전체 재수출 규모 중 대 이라크 재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05년 7%(19억 달러)에서 2006년 8%(21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어 이라크는 UAE의 주요 재수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특히 2005~2006년간 이라크 전체 수입 규모가 각각 235억 달러, 262억 달러 임을 감안할 때, UAE 자체 생산품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제품의 UAE 경유 이라크 유입 규모는 전체 이라크 수입 시장의 10%에 육박함.
- 전쟁으로 이라크의 유틸리티어들이 두바이에 거처를 두고 활동하고 있어, UAE의 이라크 바이어를 활용한 진출이 활발함.

#### 4. 우회국별 수출동향 및 특징

##### □ 개황

- IMF에 따르면, 2007년 중 이라크의 수입은 200억 달러 규모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의약품, 식품 및 재건 관련 기기 및 장비 등임.

〈국별 수입량을 기준, 주요 물품의 대 이라크 이동 채널〉



##### □ 쿠웨이트

- 이라크 움카스르 항구에서 불과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쿠웨이트에는 최신식의 국제적인 항구가 2개나 있음.(Shuaiba와 Shuwaikh 항구)
- 국경을 통해 이라크로 이동되는 물자는 시멘트, 목재, 중고차, 중고 가구, 조립식 주택, 각종 공산품, 식품 등으로 쿠웨이트의 압달리(Abdali)와 이라크의 사프완(Safwan) 두 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경의 통로는 군수물자와 민간물자 이동용으로 두 개가 있는데 군수물자는 사전 확인에 쉽게 반입되는 경향이 있고 민간물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됨.

〈쿠웨이트 - 이라크 국경 주요 도시〉



〈쿠웨이트를 경유하여 이라크로 수출 방법〉

방법	처리 방법
통과 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괄관세 5% 예치 후, 3개월 후에 환급</li> <li>쿠웨이트의 화물 인수자가 자유무역지대 이용이 불가할 경우</li> </ul>
자유무역지대 (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쿠웨이트 파트너를 지정하여 현지에서 항구 이용료, 인부 사용료, 통관 수수료, 에스코트 비용 등을 운송회사에 지불하고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함. 혹은 한국에서 수출회사가 운송회사에 이들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는 방법도 있음.</li> </ul>
수입 화물(쿠웨이트 바이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쿠웨이트에 수입된 후 이라크로 재수출 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쿠웨이트 및 이라크 양측에 관세를 납부해야함.</li> </ul>

- 쿠웨이트 기업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아웃소싱하여 이라크로 재수출 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아래와 같음.

〈쿠웨이트를 통한 주요 이라크 재수출 품목〉

구분	세부 품목
유전 장비	플랜지, 밸브, 파이프, 화염 콘트롤 화학약품, 열교환기, 각종 측정기 등
수처리 시설, 전기 시설	파이프, 케이블, 필터, 변압기, 펌프, 발전기, 정수기, 담수 플랜트, 화학 분석기, 전기 미터기, 케이블, 전력타워, 전주 등
의료기기	의약품, 환자 모니터링 장비, X-레이장비, MRI, 각종 병원 소모품 등
자동차	버스, 중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 장비	굴삭기, 덤프 트럭, 포크 리프트, 크레인, 타워크레인 등
가전제품, 생필품	생수, 식품, 가구류, 휴대폰, TV, 에어컨, 담요 등
건설(향후진출가능)	도로, 다리, 주택, 하수 설비, 병원 및 석유·가스 플랜트

<참고사항 : 쿠웨이트 우회진출시 컨테이너 비용>

- 컨테이너의 국경통과 비용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600달러, 40피트 기준 800달러 수준이며 이 컨테이너가 바그다드로 갈 경우 내륙운송비로 20피트 컨테이너가 3,300달러 40피트 컨테이너가 3,500달러 추가 소요됨.
- 이라크 내 도시별 치안 상황 및 거리를 감안해서 내륙 운송비가 다양하게 산출됨.

○ 쿠웨이트 진출의 강약점

<b>강 점</b>	<p>■ 천혜의 항구 조건, 비용 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걸프만 최북단의 천혜의 항구 조건 구비</li> <li>- 한국에서 운송시 요르단, 터키 경유보다 시간 및 운송비가 가장 저렴</li> <li>▪ 걸프전 이전 두바이에서 활동하던 이라크 비즈니스맨들이 현지 높은 사무실 임대료 및 인도인들과의 과다 경쟁 등으로 쿠웨이트로 대거 이주하고 있음.</li> </ul>
<b>약 점</b>	<p>■ 남부지역 치안 불안으로 직접 거래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웨이트와 인접한 이라크 남부 지역의 치안불안으로 양국간 직접교류 및 우회진출 교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전쟁 직후 트레일러 기준 1일 3,000대가 이동하던 물동량이 최근에는 1,500-2,000대로 수준으로 감소)</li> <li>- 쿠웨이트에서는 이라크 국경까지만 물품을 인도, 이후부터는 이라크인에 의해 처리됨.</li> <li>▪ 양국간 국교가 수립되긴 하나 걸프전 당사국으로 아직 상호 적대적인 감정이 있음.</li> </ul>

□ 요르단

- 요르단 정부는 아카바항<sup>10)</sup> 개발과 함께 주요 지역에 자유 무역지대와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대 이라크 우회 및 직접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자르카 자유무역지대는 한국 전체 중고차 수출 물량의 70%(2004년), 50%(2005년)가 이곳을 거쳐 이라크로 재수출 되었을 정도로 한때는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의 메카 역할을 하였음.

10) 1965년 당시 킹 후세인 요르단 국왕의 결단으로 사막 땅 6,000 s/km를 사우디아라비아로 넘겨주는 대신 확보한 요르단 유일의 항구임. 이스라엘의 에일라트(Eilat)항과 평행으로 홍해에 면해 있으며 항구의 길이는 총 26km임. 연간 수출입 화물 물동량은 2천만톤, 이용객 수는 100만명 수준임.

- 하지만, 2005.9월 이라크 정부의 중고차 연식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 중고차의 대 이라크 수출이 크게 위축됨.(과거 수십 개의 한국 중고차기업 관계자가 이곳에서 활동했으나 현재는 대우자동차 판매 1곳만 활동 중)
  - \* 2005년 우리나라의 국별 중고차 수출 : 요르단 49%, 수단 11%, 몽골 6% 등
- 한때 이라크 정부도 우회진출지로서 요르단을 중요시하여 아카바항에서 이라크로의 물자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88.12월 이라크 정부의 재원으로 요르단 수도 암만과 아카바항과을 연결하는 사막 고속도로(Desert Highway)를 건설한 바 있음.
- 요르단 진출의 강약점

<b>강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앞선 항만 인프라 및 높은 경제성, 이라크 네트워크</b></li> <li>▪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라크 육상운송 전담 트럭 회사가 다수 존재하고 활발한 이라크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음.</li> <li>- 2007년 말 기준 요르단 내 12,000대가 이라크 육상운송 전담 트럭으로 등록되어 있고, 요르단에 투자하고 있는 이라크인 소유 기업수는 약 1,200개 정도임.</li> <li>▪ 이라크 움카스르항은 자동차 로리선 등 대형 선박 입항이 불가하나, 요르단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항만 건설 및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30억 달러 규모) 완료시 인근 항구에 비해 인프라 면에서 확실한 우위 확보가 예상됨.</li> <li>▪ 항구 접근성 및 경제성이 높음.</li> <li>- 터키 메르신항보다 지중해와 가깝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시에 비용도 저렴함.</li> </ul>
<b>약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육로이동의 안정성 위협, 까다로운 업무처리</b></li> <li>▪ 요르단-이라크(아카바-바그다드)간 육상 운송 루트의 "high risk-high premium"</li> <li>- 도로 이동 차량에 대한 약탈 및 침탈이 근절되지 않아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이라크 내 수송 후 빈 트럭으로 돌아와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고가의 육상운송 비용이 책정됨.</li> <li>▪ 까다롭고 복잡한 세관 행정으로 인한 높은 간접비용(overhead cost)</li> <li>-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로 수송되는 물동량과 이라크인에 대한 요르단 내 업무처리가 매우 까다로워졌음.</li> </ul>

□ 이란

- 이라크-이란 간 1,000Km에 달하는 넓은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있어 해상보다는 육상 운송이 활기를 띠고 있음.

- 2004~2005년 대 이라크 수출 품목은 전쟁의 여파로 주로 토마토, 사과, 식수, 계란, 곡물 등의 생필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식품가공기계와 같은 기계류,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발전기로 가동 가능한 이란산 수랭식 에어컨, TV,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 이란산 승용차, 트럭, 버스 등으로 수출품목이 다변화 되고 있는 추세임.
- 양국간 무역활성화를 위해 이란정부는 수출보증기금으로 10억 달러를 조성하여 전대자금 형식으로 이란 제품을 구매하는 이라크인에게 지원하고자 하나, 이라크 정부와의 협조가 미흡해 현재 사용되고 있지는 않음.
- 이란 진출의 강약점

<b>강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넓은 국경선, 정치적 관계 호조세</li> <li>▪ 1,0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 양국 인근항을 통한 접근성이 높음.</li> <li>▪ 최근 정치·경제적 관계 개선으로 이란인들의 이라크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이라크 판매망 및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음.</li> <li>▪ 특히 이란의 호스라비 지역을 통해 이라크로 진출할 경우 치안이 안정적인 뿐 아니라 테헤란간 고속도로가 잘 닦여있어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국제공항이 있어 제 3국으로의 이동이 용이함.</li> </ul>
<b>약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까다로운 행정절차, 지원제도 미흡</li> <li>▪ 이라크 수출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이란 상업부, 세관, 혁명수비대, 국경수비대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네트워크가 없는 수출업자의 경우 모든 승인을 얻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li> <li>▪ 이란의 미국 및 UN의 경제제재하에 있어 이란으로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음.</li> </ul>

□ 터키

- 이라크는 터키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터키는 매년 25억 달러 이상을 이라크에 수출하고 있음.
- 터키를 거쳐 이라크로 가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터키 남부의 대형 항구도시인 메르신을 거쳐 이라크 북부의 자호(Zaho) 지역으로 운송됨.
- 자호 지역 이후의 이라크 내 운송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라크 수입업체 또는 에이전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터키-이라크 비즈니스 협의회(Turkish-Iraqi Business Council)의 회장인 Mr. Ercument Aksoy에 따르면 터키를 거쳐 이라크로 우회 수출품 중 상당부분은 중국, 한국, 인도, 일본산 제품임.
- 터키 진출의 강약점

<b>강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부 지역 진출 노하우 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키 남부 도시 이젤의 메르신항을 통해 운송하는 경우가 가장 안전함.</li> <li>▪ 터키 기업의 쿠르드 지역 등 이라크 북부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하므로, 이들의 유통 경로 및 진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음.</li> <li>- 이라크 내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에도 터키 정부 및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터키의 기업들을 통한 건설 장비 및 기자재 등의 우회 수출은 및 재건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 기회로 연결될 수 있음.</li> <li>▪ 이라크 육상운송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는 약 6만명이며 남부의 메르신, 동부의 가지안테프(Gaziantep) 또는 디야르바키르(Diyarbakir) 등의 도시에 거주함.</li> </ul> </li> </ul>
<b>약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비용, 터키 정부와 PKK 간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키 우회시 안전성은 높으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하므로 비용은 높음.</li> <li>▪ 터키 정부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PKK<sup>11)</sup> 간 분쟁이 터키를 통한 이라크 우회 수출의 최대 약점임.</li> <li>- 2008년 초 터키 정부가 PKK의 주요 근거지인 이라크 북부 지역에 대규모 소탕 작전을 전개하자 터키-이라크 간 육상 교역이 급감, 운송비 2배 이상 급등, 소요 시간 장기화 등 문제점이 발생한 바 있음.</li> <li>▪ 트럭으로 운송 시 터키의 경우 최대 23톤까지 허용되는 반면, 시리아를 통할 경우 최대 40톤까지 운송이 가능하여 시리아를 선호하는 바이어들도 있음.</li> </ul> </li> </ul>

□ UAE 경유

- UAE 전체 재수출 규모 중 대 이라크 재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05년 7%(19억 달러)에서 2006년 8%(21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어 이라크는 UAE의 주요 재수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특히 2005~2006년간 이라크 전체 수입 규모가 각각 235억 달러, 262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UAE 자체 생산품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제품의 UAE 경유 이라크 유입 규모는 전체 이라크 수입 시장의 10%에 육박함.

11) PKK : 1978.11.27일 터키의 디야르바르크에 설립된 쿠르드민족의 독립운동 단체로 정식명칭은 쿠르드노동당(Partiya Karkeren Kurdistan)이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무력항쟁을 불사하고 있음.

- UAE 수출입 물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의 경우, 2006년 두바이 전체 수출(비석유 부문) 규모 49억7,505만 달러 중 대 이라크 수출이 9,829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라크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 미국, 쿠웨이트 등에 이어 2006년 두바이의 11위 수출국을 차지함은 물론 주요 재수출 국가 4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라크가 UAE의 주요 재수출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음.

〈2006년도 두바이 주요 재수출국〉

국가명	이란	인도	스위스	이라크	파키스탄
2006년 순위	1	2	3	<b>4</b>	5
2005년 순위	2	1	4	<b>3</b>	6

자료원 : 두바이 관광청

- 두바이의 대 이라크 주요 재수출 품목은 기계, 가전 제품군으로 수출액 약 4억7천만 달러 수준임.
- 2008년 4월 UAE 내 대표적 자유무역지대인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 내 운영중인 이라크 회사는 총 563개로, 이라크-UAE간 교역이 활발함을 나타내 주는 단적인 예임.

〈2008.4월 현재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 진출 주요국별 기업수〉

국별	한국	인도	이라크	일본	미국	중국	한국
진출기업수	1121	712	<b>563</b>	121	281	77	51

주 : 회사별 자회사 및 계열사 포함

자료원 : JAFZA

○ UAE 진출의 강약점

<b>강 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편리한 물류 인프라, 제 3국 진출이 용이</b></li> <li>▪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개방도가 높고 주변국 진출에 편리한 물류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 이라크 시장 진출에 적합하다 할 수 있음.</li> <li>▪ 이라크는 물론 GCC 회원국을 위시한 중동, 아프리카, CIS 국가를 공략할 수 있는 'One Post Multi Target'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li> </ul>
<b>약 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낮은 접근성, 고가의 물류비용</b></li> <li>▪ 이라크와 UAE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터키, 시리아, 요르단 등에 비하여 접근도가 낮으며 이에 따라 물류비용이 높은 편임.</li> <li>▪ UAE에 진출해 있던 이라크 바이어들이 최근의 UAE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라크 인근국으로 근거지를 이주하고 있음.</li> </ul>

## 5. 우회 진출 대표 사례

### 가. 외국기업 진출사례

#### □ 중국 및 인도기업이 두각

- 중국의 픽업트럭 회사인 'Great Wall'은 쿠웨이트 에이전트 Al-Sayer Group (쿠웨이트에서 토요타자동차 에이전트)을 통해서 이라크에 연간 1,300대 정도의 트럭을 우회 수출하고 있음.(1천5백만 달러 규모)
  - 쿠웨이트의 Al-Shawaf사도 중국으로부터 차량을 수입하여 이라크로 재수출하고 있음.
- 인도 기업인 Jindal Group은 쿠웨이트 에이전트 Al-Meer Technical Services 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라크 석유관련 플랜트에 필요한 카본 스틸 파이프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라크 정부의 입찰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3억 달러 규모, 공사기간은 3년으로 공사 대금은 이라크 정부가 쿠웨이트 회사로 L/C를 오픈하여 지급하기로 함.

#### □ 세계적인 건설 엔지니어링사인 미국의 벡텔(Bechtel) 주도

- 벡텔은 현재 이라크 내에서 발전소, 용수, 병원, 학교 등 이라크 재건과 관련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물류 전진기지로서 요르단의 아카바항을 지정하여 모든 소요 물량을 아카바항을 통해 수입하고 있음.
  - 아카바-바그다드 간 물류 이동도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라크 내에서는 미군의 에스코트를 받도록 함으로써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있음.

### 나. 우리기업 진출사례

#### □ 요르단 진출 한국기업이 이라크 시장 관장

- 요르단에 진출(지사 설치) 한국기업은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일렉 등 가전 3사와 대우자동차 판매(중고차 수출) 등 4개사<sup>12)</sup>로, 이들은 모두 이라크 시

장을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LG 전자의 경우 암만에 소재하지만 사무소의 이름을 '바그다드 사무소'로 명명하고 있음.

- 가전 3사는 공히 요르단 내에 SKD 생산 공장(부품 수입, 조립 생산)과 협력하여 냉장고, 세탁기, TV 등 범용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여 육상운송(Desert Highway)을 통해 이라크로 물건을 이송시키고 있음.
  - 고급 수입품은 요르단 아카바항 이용이 가장 많으며, 제품의 주 수요처의 위치 혹은 현지 에이전트의 요청에 따라 터키의 메르신항(주로 북부지역으로 물량을 보낼 때)과 움카스르항(주로 남부 지역으로 물량을 보낼 때)을 이용하는 예도 다수 있음.
- 대우 자동차 판매는 전량 아카바항으로 입항시켜 암만 인근 자르카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이라크로 물건을 반입시키고 있음.
  - 이라크의 움카스르항은 항구 규모가 작아 자동차 선적 대형 선박 입항이 불가, 중고차 등 차량은 대부분 아카바항을 통해 입항함.(발전 설비 등 대형 구조물의 경우 아카바항도 처리가 불가하여 사우디의 젓다항을 통해 입항하여 육상으로 이동됨)

<참고 사항 : 주요 기업들의 대 이라크 물건 반입 방법>

- LG전자 : 품목별로 암만(에어컨), 두바이 및 쿠르드 지역(가정용 전자제품) 등 3곳에 에이전트를 두고 있으며, 에이전트의 요청에 따라 도착항을 결정함. 통상 두바이 소재 에이전트는 이라크의 움카스르항을, 쿠르드 소재 에이전트는 터키의 메르신항을 선호함. 요르단 내 하청 공장에서 생산되는 범용 제품은 대부분 육로를 통해 이라크로 수송됨.
- LG상사 : 이라크로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전량 요르단의 퀴 알리아 국제공항을 통해 육상 운송 방식으로 이라크로 수송하고 있음.
- 삼성전자 : 요르단의 아카바항과 터키의 메르신항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육상 이동시 치안이 양호한 메르신항을 선호함.

12) 이외에 두산 중공업 (화력발전소 건설), 코오롱 건설 (폐수처리장 건설) 등이 요르단 프로젝트 사무소 (공사 종료 시 철수)를 설치하고 있음.

## IV. 이라크 진출 전략 및 유의사항

### 1. 이라크 진출 전략

- 진출 고려시 치안이 안정적인 쿠르드 지역에 직접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치안 불안으로 직접 진출이 어려운 중부 및 남부 지역에 대해서는 제 3국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이라크 내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치안이 개선되면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이라크 내 치안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인근국에 진출해 있는 이라크 바이어 및 그들의 네트워크를 쌓는 데 공을 들여야 할 것임.
- 한국은 미국, 영국에 이어 제 3위 파병국가로 자이툰 부대의 평화적 임무 수행 및 KOICA의 개발 원조 등에 힘입어 이라크 내 한국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볼 수 있음.
- 이라크인들의 반미감정은 상당히 심한데 반해, 한국 기업들에 대한 호감은 크기 때문에 미국의 큰 기업들과 공동 진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이나 영국이 유전에 손을 대는 것은 결국 유전 때문에 이라크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한국과 제휴하여 진출할 경우 이라크인들의 반미감정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음.
- 한국이 유전개발에 있어 다른 메이저 외국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정유공장이나 파이프 등 인프라 설치에는 뛰어나므로 이런 분야로의 진출을 고려해 볼만 함.
- 초기 진출시 요르단 및 터키 등의 인근국을 중심으로 이라크 관련 박람회를 통해 정보 수집 및 진출 기회를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함.
- 기타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정보통신박람회, 전기발전박람회, 건축자재박람회 등 이라크 바이어나 중동의 중계상인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현지 전문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를 발굴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이라크 진출 관련 대표 전시회〉

전시회명	Rebuild Iraq 2008	IRAQ INTERNATIONAL FAIR
개최지	요르단 암만	터키 가지안텝
홈페이지	www.rebuild-iraq-expo.com	www.forumfair.com
개최시기	매년 5월경	매년 5월경
규모	31,000sqm	26,000sqm
참가국 (개최국/외국참가사)	48개국 (50/975개사)	30개국 (698/213개사)
	13,445명(4025/9420명)	52,120명(47210/4910명)
주요 전시품목	각종 기계류,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건설, 전기, 교량, 도로, 공항, 항구, 통신, 식수, 위생, 원유, 가스, 건강, 농업, 교육, 식품, 정보통신, 호텔 및 기타 일반 상품 전반 등 종합품목	건축·건설·빌딩, 섬유·직물, 식품·음료, 자동차·이륜차, 산업일반, 전기·전자
한국참가기업수	31개사	0

- 쿠르드 진출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아르빌국제박람회(2008.10.14-19일)를 통한 진출 전략 모색해 볼만 함. 2008년 박람회에 KOTRA가 한국 홍보부스로 참가할 예정이므로 관심기업은 KOTRA로 접촉해 볼 수 있음.

## 아르빌 국제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박람회 개요</li> <li>▪ 연 혁 : 올해 4회째 (매년 개최)</li> <li>▪ 개최기간 : 2008.10.15~19(5일간)</li> <li>▪ 장 소 : 아르빌 Sami Abdul Rahman Park</li> <li>▪ 주최기관 : IFP IRAQ(www.ifpiraq.com) (IFP : 레바논에 본사를 둔 중동의 전시 주최기관)</li> <li>▪ 특이사항 : LG전자가 우리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단독 참가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개최개요</li> <li>- 개최기간 : 2007.10.29-11.2</li> <li>- 총 전시 업체수 : 351개사</li> <li>- 유효 임대면적 : 5,041m<sup>2</sup>(옥외 554m<sup>2</sup> 포함)</li> <li>- 참가국가 수 : 22개국</li> <li>· 국가관 : 오스트리아, 브라질, 독일, 이란,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UAE 등</li> <li>- 참관객 수 : 63,780명</li> </ul>
--	--

- 남부지역의 치안 상황에 유의하여 탄력적 진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 또는 우회 수출을 통해 남부 시장에 상품 수출을 확대하고, 플랜트, 프로

젝트 시장 진출을 위해 이라크 유력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점진적으로 진출하고, 합작 투자 등 투자 진출은 치안 여건, 투자관련 하위법령 제정 및 투자지원 조직 설립 등의 제반 투자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함.

- 남부 지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남부지역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즉, 시아파인 중앙정부와 협조적 관계에 있는 사드르파와 파달라당의 거점인 바스라주는 중앙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적절한 전략이 필요함.
- 남부지역은 이라크 석유자원의 약 80%가 매장되어 있어 정부의 석유법 통과와 치안 확보시 석유개발, 석유화학분야 등에서 우리기업의 진출이 유망하나 아직까지는 치안이 불안하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임.

## 2. 이라크 진출시 유의사항

- 이라크의 치안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미군 철수에 따른 치안 상황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제발전 및 사회 안정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치안 안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2008.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아파 정파간 석유자원 지배, 지역 패권 등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정파간의 타협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 아직까지 이라크 내 사업 추진 시 치안유지비용으로 총 투자액의 약 25%가 소진되고 있으며, 이 비용은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몫이니 이 비용을 감안한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 쿠르드 지역은 이라크 내에서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외부 여건 불확실성에서 오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진출하여야 할 것임.

- 쿠르드 정부는 유전개발과 관련, 석유법 해석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음. 외국기업과 PSAs 체결한 유전에 대해 쿠르드 정부 분배분을 중앙정부와의 배분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중앙정부와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 진출 외국기업의 투자활동에 문제 소지가 있음.
- 그 외 독립에 대한 터키, 이란 등과의 정치적 이해 대립, 키르쿠크 지방의 쿠르드 귀속과 관련된 영토적 대립 등으로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음.
- 쿠르드 정부는 중앙정부의 배당금(정부 예산의 17%) 이외 수입원이 없으므로 이 지역의 재건사업 참여시 재원 조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쿠르드 정부는 유전 개발을 외국인 투자자본에 의존하고 있으나 외국기업이 석유를 개발해 현금화하기까지 최소 3~5년이 소요되므로 투자기업은 이 기간 동안의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이라크의 석유 수출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이라크 연방 정부와의 합의 없이 쿠르드에서 채굴된 석유를 반출할 길이 없어 보임.
- 쿠르드에 진출한 노르웨이의 DNO사는 광구 개발을 마치고 생산에 들어갔으나 수출 판로가 막혀 있어 원유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음.(자료원: Energy Intelligence Group, 2008.5월)
- 또한 쿠르드 지역에 정유시설이 없고 이 지역의 석유 설비는 이라크의 정유 시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원유 운송에 어려움이 따름.
- 2008.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아파 정파간 석유자원 지배, 지역 패권 등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정파간의 타협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호간의 무력 충돌 재발 우려가 있음.

### 3. 우회국을 통한 진출전략 및 유의사항

#### □ 우리기업 진출전략

- 대 이라크 진출은 우회국의 현지기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 시장에 조예가 깊고 양쪽에 비즈니스 기반을 갖춘 현지 파트너<sup>13)</sup>를 발굴하고 이라크 내륙운송은 이라크인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함.
- 안전, 비용, 시간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운송루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음. 바그다드행 수출 화물의 경우 안전을 가장 중시한다면 터키의 메르신 항구를 거쳐 이라크 북부로부터 내려오는 루트를 권할 만 하지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하므로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짐.
  - 비용만을 생각한다면 요르단 아카바항에서 육로로 트레빌 세관을 거쳐 수송하는 방법이 저렴하나 털릴 위험이 있음.
  - 딜리버리 기간을 중시한다면 두바이 제벨알리 경유하여 이라크 바스라의 움카스르항을 이용해야 하나 움카스르 항의 화물 처리 능력이 낮고 바스라→바그다드 구역의 안전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음.
- 화주(貨主)에 따라 오퍼기준도 다르므로 적절한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이라크 정부 구매 물자에 대해서는 [C.I.F. 바스라]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므로 수출자는 바스라항까지만 책임지면 되며 대부분의 수출 화물에 해당하는 민수용 제품은 수입상(화주)이 원하는 선적조건을 수용하면 됨. 가급적 수출자는 이라크 내륙운송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좋음.
- 대 이라크 우회 수출의 관점에서 최종 도착항 및 육상 이동 등에 대한 결정은 통상 한국의 수출자가 아닌 현지 수입자 (혹은 에이전트)가 결정하지만 간혹 부득이하게 수출자가 바그다드까지 화물을 운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13) 쿠웨이트에서는 흔히 이러한 현지 기업을 터미널 바이어(Terminal Buyer)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일단 이라크에 들어갈 물자를 쿠웨이트로 통과 시키거나 재수출 함.

- 이 경우 쿠웨이트, 요르단, 시리아, 터키, 이란 등의 주변국에서 이라크 행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 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이들이 사고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가능한 중소기업보다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규모가 크면서 잘 알려진 업체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함.
- 전쟁으로 인해 우회국으로 이주한 이라크 비즈니스맨들과의 유대 강화(이들은 대부분 이라크 현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라크 재건 관련 세미나 및 전시회 등에 꾸준히 참가하여 정보 수집 및 유력 이라크인 파트너를 확보하여 이라크 시장 안정 시 동반 진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교분 확보와 준비가 필요함.
- 또는 정치적 안정시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적 전략하에 UAE 등의 주변 국가들을 공략하고, 추후 이라크 시장 선점의 초석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유의사항

- 이라크 관련 고수익을 전제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제안이 떠돌고 있으니 믿을 만한 정보에 대한 선별 능력이 필요하며 대 이라크 교역에 대한 까다로운 세관 행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함.
- 우회국 현지기업 활용 시 이라크 내부사정에 따라 우회국의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호권리 및 의무 관계를 확실히 하여야 함.
- 이라크 직접거래 시 정부기관 혹은 외국 금융기관 보증 결제 수단이 아닌 민간 거래일 경우 현금 100% 선금 등으로 철저히 위험에 대비하여야 함.

## 2008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01	한-EU FTA가 수출/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 유럽 바이어 및 대한 잠재투자가 설문조사 결과	2008.1
08-002	대중 섬유수입규제 해제와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	2008.1
08-003	일본 소비패턴 동향 및 시사점	2008.2
08-004	주목해야 할 이머징 마켓의 소비 패턴 변화	2008.3
08-005	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 및 진출 전략	2008.3
08-006	유럽 그린구매 동향과 진출확대를 위한 키워드	2008.3
08-007	한-GCC FTA 체결에 대한 시각 및 반응	2008.3
08-008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2008.4
08-009	중동·아프리카 프론티어 시장 유망품목과 성공전략	2008.4
08-010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08.4
08-011	중국·인도·일본의 아프리카 시장쟁탈전	2008.4
08-012	러시아기업의 해외진출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2008.4
08-013	2008 서남아시아를 주목하라	2008.4
08-014	미국 FDA 통관정책 및 우리 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2008.4
08-015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의 해석	2008.5
08-016	해외자원개발 피해사례 및 국가별 유의사항	2008.5
08-017	주요국의 서비스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08.6
08-018	세계 섬유시장변화와 우리 해외생산전략	2008.6
08-019	베트남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2008.6
08-020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8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8.6
08-021	중, 하이테크 기술기업 우대혜택 변화와 전망	2008.6
08-022	대중국투자 뉴 트렌드와 시사점	2008.6
08-023	중동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정책 및 우리의 진출전략	2008.6
08-024	떠오르는 마그레브 시장, 이렇게 공략하라	2008.6
08-025	베이징올림픽의 중국 소비경제 효과	2008.6
08-026	초고유가 시대 :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절약상품 동향	2008.7
08-027	아프리카 이동통신시장 빅뱅	2008.7
08-028	유가상승에 따른 주요국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책	2008.7
08-029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 글로벌 중소기업을 향해	2008.7
08-030	한국 및 경쟁국 기업의 해외투자진출 유형 선호 비교와 시사점	2008.7
08-031	작은변화 큰시장 - 마이크로트렌드를 포착하라	2008.7
08-032	인도시장 주요수출품목의 한·중·일 경쟁 분석	2008.7
08-033	KOTRA-무역협회 공동 FTA가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조사	2008.8
08-034	이라크 진출, 이제는 준비할 때	2008.8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01	2008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8.1
08-002	러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08.1
08-003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10대 판례집	2008.2
08-004	멕시코 투자실무 가이드	2008.4
08-005	청산매뉴얼	2008.5
08-006	중국지재권대리사무소 디렉토리	2008.5
08-007	중국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5
08-008	EU 현지 기업들의 REACH 대응사례와 시사점	2008.5
08-009	중국 신노동법 下 인력관리 매뉴얼	2008.5
08-010	2007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08.6
08-01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7	2008.6
08-012	북미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6
08-013	중국투자가 심층조사 보고서	2008.6
08-014	말레이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08.6
08-015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8.6
08-016	중국 환경시장 진출가이드	2008.7
08-017	유럽 대형 IT 유통업체 진출 가이드 - 7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2008.7
08-018	2008년 세계 주요도시의 생활여건	2008.7
08-019	Q&A로 본 베트남투자 A to Z	2008.7
08-020	2007/2008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CD)	2008.7
08-021	2008 경기국제보트쇼 종합보고서	2008.7
08-022	베트남 진출기업 청산매뉴얼	2008.7
08-023	태국 투자실무가이드	2008.7
08-024	2008 외국인투자기업 생활환경애로조사	2008.8
08-025	2008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애로조사	2008.8
08-026	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 해설 및 대응방안	2008.8
08-027	아시아 자원개발진출가이드 I - 인도네시아,인도,방글라데시,호주,캄보디아,뉴질랜드 -	2008.8
08-028	아시아 자원개발진출가이드 II - 필리핀,베트남,미얀마,태국,스리랑카,말레이시아,파키스탄 -	2008.9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01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8.1
08-002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포럼	2008.1
08-003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가이드북	2008.1
08-004	한-아세안 FTA순회설명회 (Korean -Asean FTA Seminar)	2008.5
08-005	몽골투자포럼(Mongol Korea Investment Forum)	2008.5
08-006	러시아 우랄시장 설명회	2008.5
08-007	극동 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2008.5
08-008	중국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설명회	2008.5
08-009	중동 산유국 진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	2008.6
08-010	Global Project Plaza 2008	2008.6
08-011	한일 에너지절약환경 포럼	2008.6
08-012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08-013	러시아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08-014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08-015	미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 작성자

- ◆ 최태식 (바그다드 무역관)
- ◆ 권중헌 (암만 무역관)
- ◆ 김종원 (쿠웨이트 무역관)
- ◆ 김찬열 (이스탄불 무역관)
- ◆ 이영희(두바이 무역관)
- ◆ 한석우(테헤란 무역관)
- ◆ 문숙미 (중아CIS팀)

Global Business Report 08-034

## 이라크 진출, 이제는 준비할 때

발행인 | 조환익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8년 8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8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